

停年 所懷 (정년 소회)

한림의대 소아청소년과 교수 이해란

올 여름 그리도 뜨겁더니 요즈음 아침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고 서늘함마저 느껴져 어김없이 제 때 찾아오는 계절의 오묘함과 변함없음에 숙연한 마음이 든다.

필자가 알레르기학을 처음 접한 것은 1978년 연세의대를 졸업한 후 모교를 떠나 당시 최신 시설과 교육 환경을 자랑하던 국립중앙의료원(National Medical Center)에서 故손근찬 과장님께 소아과 수련을 받게 된 것이 계기가 되었다. 故손근찬 과장님은 노르웨이에서 알레르기학을 연수하고 귀국하시어 국립의료원 소아과는 일찍이 알레르기클리닉을 운영하였다. 그 시절에는 피부시험시약이 너무나 비싸서 냉장고에 자물쇠를 채우고 보관하였는데 전공의 중에서 가장 시약을 아껴 쓴다는 이유로 필자가 알레르기피부시험을 전담하였고 후일 알레르기학을 전공하는 계기가 되었다.

1983년 전문의 취득 후에는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에서 일반소아과 진료와 더불어 독자적으로 알레르기클리닉을 운영하였다. 1985년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에 정회원으로 등록하였고 이후 학술, 기획, 재무 개원이사를 맡아 활동하였다. 초창기에는 간행위원으로 활동하며 ‘사천만의 알레르기’라는 교육용 책자를 만들었고 이후 천식, 비염, 두드러기 등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국내 알레르기 진료의 지침을 제시하였다. 2013년에서 2015년까지는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이사장직을 맡아 서울에서 세계천식학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우리 학회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소아의 알레르기질환이 성인과 차이가 있음에 1987년 소아과를 전공하는 일부 회원들이 모여 소아알레르기연구회를 조직하였고 이후 대한 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로 개칭하였다. 이어 소아알레르기학회 국제이사로 활동하던 1997년 APAPARI(Asian Pacific Association of Pediatric Allergy, Respiratory and Immunology)를 조직하였으며, 이후 이 학회는 지명도 있는 국제학회로 성장하였음에 필자에게는 큰 보람이 되었다.

필자가 주력하였던 다른 한 분야는 대중과 의사들에게 알레르기에 대하여 홍보와 교육을 하는 것이었다. 특히 1998년 바르셀로나 회의 이후 1999년에도 우리

나라에서 세계천식의 날” 행사를 시작하였고 ‘천식알레르기예방운동본부’가 개설 되었으며 이후 ‘한국천식알레르기협회’가 발족함에 이에 업무를 이관하게 되었다. 또한 전국적 역학조사에 참여하여 우리나라 알레르기 데이터를 만들고, 꽃가루 관측을 위한 전국적 네트워크를 만들어 예보를 시작하고 한국형 꽃가루 달력과 도감을 발간하기도 하였다.

돌아보면 6.25 전후에 태어나 대한민국이 눈부신 속도로 발전하고 세계적으로는 과학과 의학 기술이 팽창하던 ‘지식의 빅뱅 시기’를 거치며 운 좋게 의사로서 교수로서 일할 기회를 얻은 우리 세대는 분명 축복 받은 세대임이 분명하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동안 은혜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끝으로 후배들에게 한마디 당부하자면, 향후 빛의 속도로 문명이 발달하고 인간과 기계가 소통하는 새로운 세상에서는 의사나 교수의 역할이 분명히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육의 변화 속도는 너무나 느려서 젊은 세대나 새 시대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학계는 최대한 빠르게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어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후배들의 역할과 각오가 더욱 절실하다.

수 십 년 앞만 보고 달리다 정년을 맞아 이제 문득 멈추어 뒤를 돌아보니 매일 소소하게 흘려버린 많은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음을 느끼게 된다. 부디 여러분은 매일의 소소함을 귀중히 여기는 한편 아울러 다가올 빛나는 미래를 준비하는 현명한 삶을 만들어 가시길 기원 드리며 조병화 시인의 ‘빈 의자’라는 시의 한 구절로 두서없는 글을 마무리 하고자 한다.

“지금 어드메쯤 아침을 몰고 오는 분이 계시웁니다.

그분을 위하여 묵은 이 의자를 비워 드리지요....”

감사합니다.

2018. 8월 이혜란